ZEROIN FUND
RESEARCH
Monthly
2008년 12월
제 80호

CONTENTS

1. Fund Market Focus
2. 국내펀드 동향
3. 해외펀드 동향

〈Focus〉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국내펀드〉
대환란의 2008년, 주식펀드 Down…채권펀드 Up

〈해외펀드〉
미국 發 금융위기로 해외펀드 반토막

공 지 사 항

'GIPS Total Service' 설명회

새해에 새롭게 적용될 GIPS에 운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로인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명회를 가집니다.

우선, 2009년 1월부터 변경 적용될 자문사 일임펀드의 '신유형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자문사의 GIPS 도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제로인이 준비한 'GIPS Total Service'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일시 : 2009년1월8일 (목) 오후 4시~오후 6시
2. 장소 : 여의도 한진해운빌딩 23층 소강당
3. 주요내용
(1) 일임자문사 운용펀드에 대한 신유형분류체계 및 평가방법
(2) 자문사를 위한 제로인의 GIPS Total Service

※ 관련문의 : 02-769-9112, zips@zeroin.co.kr
정태진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단어 '공포'

작년 국내외 증시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단어는 '공포'였다. 유가가 폭등하며 나타났던 'I(Inflation : 물가상승)의 공포'를 시작으로 'S(Stagflation : 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의 공포' 'R(Recession : 경기후퇴)의 공포' 'D(Deflation : 물가하락)의 공포'를 차례로 거치며 주가는 널뛰기를 계속했다. 최근 구조조정 이슈 속에 나온 'J(Jobless : 실직)의 공포'까지 공포는 여전히 증시를 지배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증시 공포 속에 펀드시장 역시 공포와 혼돈을 경험했다. 지난 200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기원을 맞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해 코스피지수는 1000선 아래까지 조정을 겪으며 펀드투자자 대부분이 원금손실로 고통을 겪었다. 재테크의 최고수단으로 찬사를 받았던 펀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지난 한 해 펀드시장 이슈를 정리해 보고 각 증권사에서 발표한 2009년 펀드시장 전망을 정리해본다.

1. 주식펀드 세계금융시장의 버블 붕괴로 반 토막

세계금융시장의 버블 붕괴로 국내주식형펀드 -38.5%, 해외주식펀드 -53.0%

미국 부동산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파산과 신용경색을 경험하는 사상유례 없는 충격을 겪었다.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로 팽창된 버블이 동시에 터지면서 불거진 실물경기 침체는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고 신흥공업국가에 까지 확대됐다. 이에 글로벌 증시는 선후진국, 섹터를 불문하고 나락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증시 하락 속에 2008년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주식형 펀드와 해외주식형 펀드는 각각 38.50%, 52.99% 하락했다.

국내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2008년 10월 24일 연중 최저치인 938.75를 기록하며 1000포인트가 붕괴됐다. 이는 2007년 10월 31일 기록한 코스피 사상 최고치(2064.85포인트) 대비 -54.54%하락한 것이다. 특히 9월 들어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에 한국 증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주식펀드 -55.26%

해외주식형펀드 중 중국주식펀드는 같은 기간 동안 -55.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간 밸류에이션 고평가와 수급 부담, 올림픽 이후 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중국증시가 급락하며 중국주식형 펀드에서만 144,380억원의 순자산액이 증발했다.

국내와 해외 증시의 상관관계 높아지고 2~3년 투자한 펀드도 원금 손실 범위에 들어

블랙스완(Black swan :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정도로 특이한 시장 환경이 이어지며 성공투자 방법으로 믿어왔던 '장기분산투자'라는 원칙도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국내와 해외 증시의 상관계수가 크게 높아지면서 분산투자 효과마저 희석되고, 2~3년 투자한 펀드도 원금손실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자료 : 제로인

2. 상반기 이슈펀드, 하반기 최악펀드로 몰락

경기침체 우려로 원자재가격 하락

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 연초대비 -53.5%,

CRB지수 -39.4%

상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던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은 달러 약세와 글로벌 투기세력의 개입에 출렁이며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하반기에 들며 달러의 강세반전과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 가격은 연초대비 53.5%, 7월 2일 연중 최고치(145.29달러) 대비 69.3% 하락했다. 또한 대표적인 상품지수인 CRB지수는 7월 2일 연중 최고치인 473.52를 기록하며 월초대비 32%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하락세에 12월 5일 연중 최저치(208.60)를 기록하며 연초 이후 수익률이 -39.4%를 기록했다.

원자재, 자원부국 펀드 하반기 수익률급락

이에 높은 수익률로 상반기에 관심이 집중됐던 원자재펀드와 자원부국펀드 수익률은 하반기 급락세를 보였다. 러시아와 브라질로 구성된 러브펀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투자하는 EMEA와 MENA펀드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식었으며 자원부국이 포함된 브릭스 펀드로부터 투자자들의 이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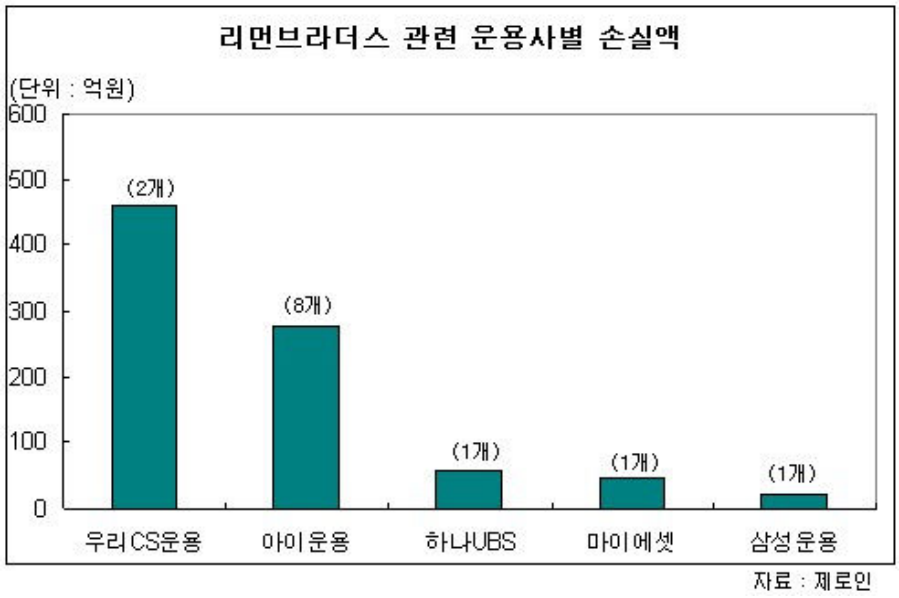
자료 : 제로인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3. 리먼브러더스 파산

리먼브러더스 홀딩스 파산보호신청으로 865억원의 부실자산 발생

리먼브러더스 홀딩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법인이 발행한 상품의 매각이 불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국내 운용사들은 해당 펀드의 환매를 연기함과 동시에 해당 장외파상상품을 부실 상각 처리했다. 이에 해당 펀드 자산의 80~100%가 장부에서 사라졌다. 리먼브러더스 관련 부실자산 원본총액(설정액)은 865억원으로 이중 586억원이 ELF, 나머지 279억원이 채권펀드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사별로 우리CS운용(2개, 460억원), 아이운용(8개, 279억원), 하나UBS(1개, 58억원), 마이에셋(1개, 46억원), 삼성운용(1개, 21억원)등이었다.



자료 : 제로인

관련 운용사들과 자산운용협회는 법적 대응 중이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현재 운용사들은 자산운용협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기 결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없어 대응 매뉴얼로 삼을만한 사례가 국내에 드물고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며 투자 자금을 받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위험 외에 또 다른 위험인 발행기관 신용위험(장외파생상품 발행기관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함을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4. 신용위험 부각 … 국내 채권펀드와 부동산펀드

신용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 부동산 부실 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와 부동산펀드 상황 악화

상반기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며 지지부진했던 채권펀드는 2008년에도 규모 감소가 이어졌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리먼브러더스 파산, 메릴린치 매각, AIG구제금융 신청 등을 거치며 전세계 신용위기가 확산됐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발 부실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도 우려와 함께 채권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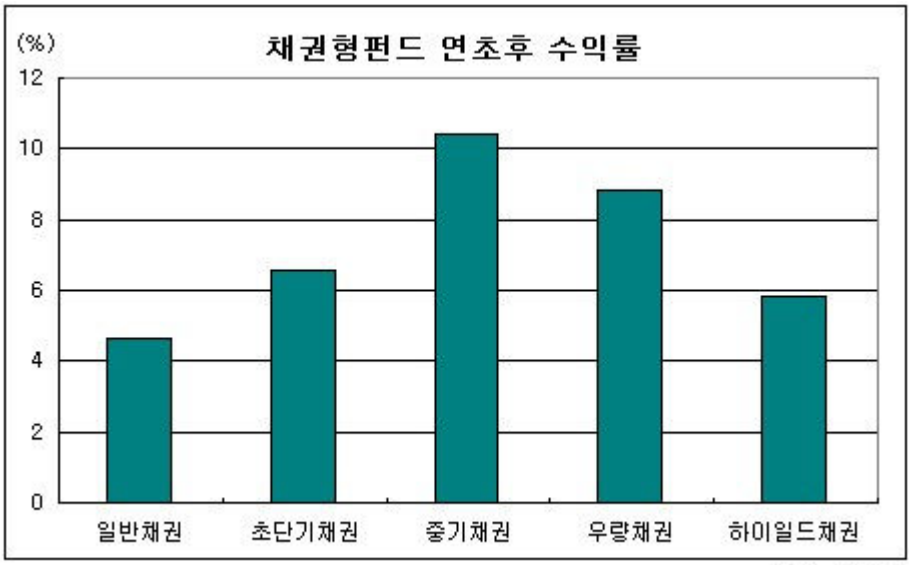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국고채와 회사채 스프레드 증가

우량채권펀드 8.8%

일반채권펀드 4.6%

이에 세계적인 정책금리인하 추세에도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경향 때문에 기준금리와 회사채간의 스프레드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에 국고채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8.8%의 수익률을 보인 반면 일반채권펀드는 4.6%로 4.2%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자료 : 제로인

부실채권펀드 환매지연

회사채 중심의 채권시장의 경색은 정상적인 채권의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며 채권펀드 투자자들의 환매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신성건설과 대우차판매의 부도 위기가 증가하면서 해당 화사채가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환매 요청이 집중됐다. 그러나 해당 채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매 연기조치는 물론 부실채권만 따로 떼어내는 '펀드 쪼개기'라는 비상조치가 취해지기까지 했다. 이런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상반기 5조원 이상의 설정액을 기록했던 공모채권펀드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급감하며 현재 4조 5,082억원을 보이고 있다.

공모채권펀드 설정액 4조 5,082억원으로 감소

1년 이내 만기인 부동산 펀드 중 7개 8,389억원 정상적인 만기 상환 어려워

부동산펀드는 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한 펀드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 붕괴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용중인 공모 부동산대출채권 펀드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펀드는 12개로 9800억원 남짓이다. 하지만 이중 정상적인 만기 상환이 불투명한 펀드가 7개 8389억원(금액기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 불완전 펀드판매에 따른 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를 시작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 이어져

올 하반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장상황이 좋았을 때 판매사 측에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핫 이슈로 부상한 계기는 CS자산운용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판매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50% 손실배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졌다. 하루 평균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90건에 이르기까지했다. 분쟁 대상도 파생상품 펀드를 비롯해 주식형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확대됐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금감원에서 삼진아웃제, 펀드판매자격시험, 미스터리쇼핑 등 도입

분쟁이 늘어나며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투자자들이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다 투자자들이 "설명을 잘 들었다"는 자필 서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 자격이 5년간 박탈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펀드판매 자격시험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의 3개 자격으로 세분화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 펀드를 2009년 5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미스터리쇼핑, 일명 펀드 암행어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조사원이 고객 신분으로 가장해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상담내용 녹취)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제도 및 관행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6. 해외펀드 환헤지 여부에 울고 웃고

미달러대비 원화가치 29% 하락, 미달러대비 엔화가치 22%상승

원달러 환율은 작년 2월 재차 1,000원을 돌파하며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8월 이후 달러 선호현상과 외국인의 주식매도, 글로벌 투자자금회수 등에 따라 원화가치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연초대비 29%이상 하락했다. 또한 엔화는 엔케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대출을 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청산으로 미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약 22% 상승했다.

해외펀드에서 환율이 수익률에 큰 변수로 떠오름

이에 해외펀드 투자에 있어서 환율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즉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환 노출 펀드는 환율 상승에 따라 펀드 수익률 하락을 일부 방어 한데 반해 환헤지를 하는 펀드는 환율 상승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환헤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외펀드에서 환헤지를 했을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환차손까지 겹쳐 총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I-1,2호'펀드 1년간 수익률 46.4%포인트 차이

이처럼 환가치가 급변하면서 동일펀드이지만 환헤지 여부만 다른 펀드들이 큰 수익률 격차를 보였다. 이중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차이가 두드러졌는데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I-1,2호' 펀드의 경우 두 펀드의 1년간 수익률 차이가 46.4%포인트를 보였고, 같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1,2호' 펀드 역시 39.1%포인트 차이로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률 선방이 돋보였다.

12월들어 환율하락에 환헤지하지 않는 펀드 수익률 악화

하지만 11월 24일 1515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2월 들어 급락하며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1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개별국 증시의 상승세에 환헤지를 하고있는 펀드들은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환노출형 펀드들의 경우 원화가치 상승으로 12%포인트 ~ 5% 포인트의 성과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푸르덴셜동남아주식펀드의 경우 헤지형과 非헤지형간 수익률 격차가 11.32%포인트 가장 크게 나타났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환헤지 선택 가능한 해외펀드

단위 : 억원, %, %p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일	순자산액	수익률			수익률차이		
					1개월	6개월	1년	1개월	6개월	1년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H-2ClassC	PCA	일본주식	20070312	16.61	-3.34	-8.50	-3.63	-5.15	35.76	46.43
PCA일본대표기업주식자H-1ClassC			20070312	24	1.80	-44.26	-50.06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2_A	삼성	일본주식	20070226	160	-3.92	-13.94	-10.63	-5.71	27.53	39.10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1_A			20070226	282	1.80	-41.47	-49.73			
삼성GREAT CHINA주식종류형자2_A	삼성	중국주식	20071012	6	-6.67	-15.90	-35.12	-8.23	17.00	19.71
삼성GREAT CHINA주식종류형자1_A			20071012	126	1.55	-32.90	-54.83			
푸르덴셜차이나스마트웨이브주식혼합자UH-A	푸르덴셜	아시아신흥국주식혼합	20080325	6	-2.37	-15.45	0.00	-10.41	16.89	
푸르덴셜차이나스마트웨이브주식혼합자H-A			20080325	56	8.03	-32.34	0.00			
삼성글로벌리츠종류형재간접자2_A클래스	삼성	글로벌리츠재간접	20070530	0	-5.97	-21.30	-23.80	-8.66	15.47	23.12
삼성글로벌리츠종류형재간접자1_A클래스			20070530	33	2.69	-36.77	-46.92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2_A	삼성	글로벌멀티섹터	20070412	4	-8.00	-24.63	-21.90	-7.11	15.06	22.67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1_A			20070412	1,308	-0.89	-39.68	-44.57			
푸르덴셜동남아시아주식자(UH)-A	푸르덴셜	동남아주식	20071214	5	-4.26	-29.32	-38.57	-11.32	14.53	17.67
푸르덴셜동남아시아주식자(H)-A			20071214	172	7.06	-43.85	-56.24			
삼성CHINA2.0주식종류형자2_A	삼성	중국주식	20080623	1	-4.77	-9.49	0.00	-8.31	14.02	
삼성CHINA2.0주식종류형자1_A			20080623	2	3.54	-23.51	0.00			
푸르덴셜유로주식자(UH)-A	푸르덴셜	유럽주식	20070403	3	-2.91	-17.38	-25.50	-1.09	11.07	20.40
푸르덴셜유로주식자(H)-A			20070403	102	-1.82	-28.45	-45.90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종류형자2_A	삼성	남미신흥국주식	20070627	3	-11.17	-42.25	-32.12	-8.30	10.95	17.83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종류형자1_A			20070627	88	-2.87	-53.20	-49.95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2_A	삼성	에너지섹터	20070625	10	-3.75	-43.96	-43.57	-5.75	9.17	15.64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1_A			20070625	440	1.99	-53.12	-59.21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2ClassA	대신	글로벌멀티섹터	20070704	2	-5.14	-34.51	-34.43	-5.43	8.40	15.11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1ClassA			20070704	41	0.29	-42.92	-49.54			
푸르덴셜글로벌천연자원주식투자신탁자UH-A	푸르덴셜	에너지섹터	20080114	1	-14.77	-41.78	0.00	-8.91	8.29	0.00
푸르덴셜글로벌천연자원주식자H-A			20080114	42	-5.86	-50.07	0.00			

주1) 기준일 : 2009년 1월 2일

자료 : 제로인

주2) 대상 : 모펀드 설정액 50억원 이상, 클래스펀드는 설정액이 큰 것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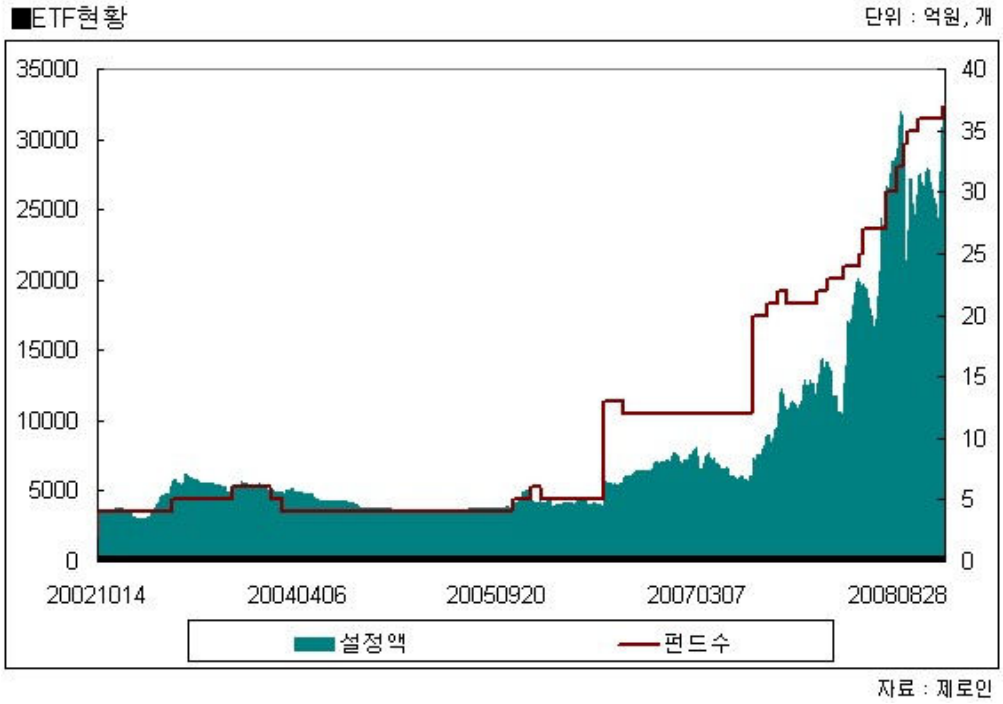
주3) 색처리된 펀드가 환헤지형

7. 상장지수펀드(ETF) 양적 팽창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액 3조 937억원으로 급성장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ETF는 올해만 16개 종목이 추가되며 37개로 늘어났다. 2005년까지 6개 상품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설정액이 현재 3조937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는 시장개설 당시 3500억원 수준보다 8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더욱이 일 평균 거래량도 2004년 100만좌수준에서 3배 이상 증가한 330만좌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일 평균 거래대금도 73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다양한 ETF신규 종목이 추가된데다 변동성이 높은 증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펀드 단타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삼성그룹주와 차이나ETF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환매수수료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고,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증권거래세 면제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한 ETF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상품, 채권ETF의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등 ETF시장의 성장은 계속 진행 중이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자료 : 제로인

8.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 운용사와 판매사의 몸부림

투자자 이탈을 막기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책 발표, 운용사와 판매사 수수료 인하

펀드의 수익률 부진에 따른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운용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책을 발표했고, 운용사와 판매사는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정부는 작년 10월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장기보유 국내주식펀드(적립식) 및 채권형펀드에 대해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가입분 적립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외되고,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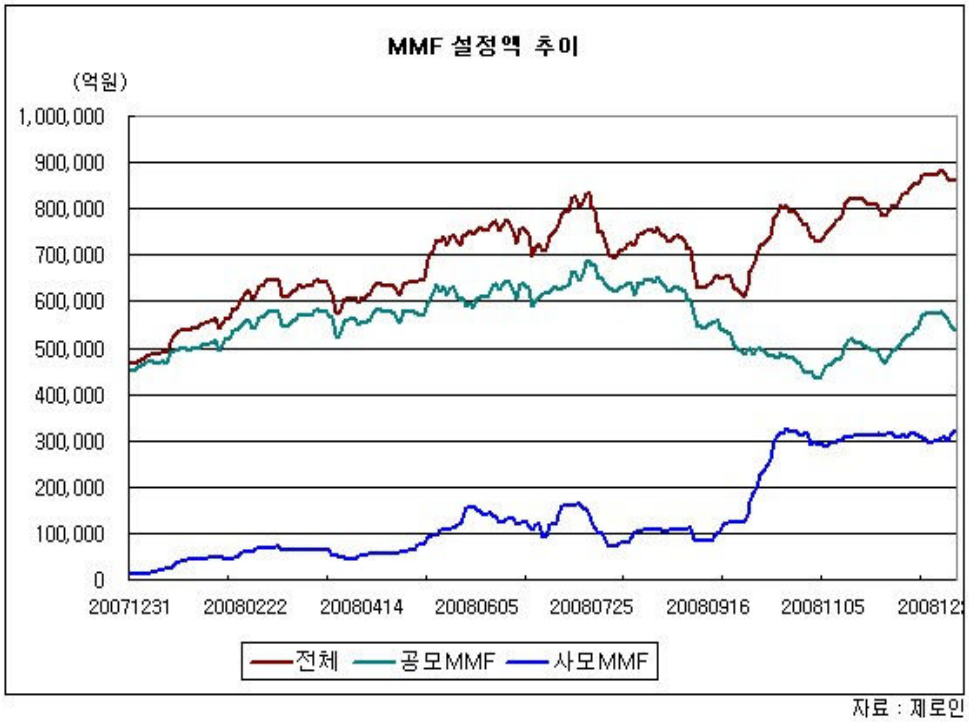
수익률 반토막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와 판매사는 수수료 수익을 챙겨왔다는 비난으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 SH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의 주식형펀드를 출시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스텝다운 방식을 적용해 펀드가입 3,5,7년에 10% 내외의 인하율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판매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계열운용사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를 실시 중에 있고, 삼성증권도 독점판매중인 펀드에 대한 판매보수 인하를 결정했다. 은행권에서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동참하는 등 펀드판매 보수 인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9. 안전자산 선호로 MMF에 자금 집중

금융시장 불안으로 단기 대기성자금 MMF로 유입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해지며 단기 대기성 자금들이 대거 MMF로 유입됐다. 2007년 익일환매제 적용 이후 주춤하던 MMF는 사모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 말 설정액이 86조 1,8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해 동안 총 39조 6,142억원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펀드시장에 유입된 58조 1,211억원 중 68.2%를 차지하고 있다. MMF가 단기 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매월 초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별 일평균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초순과 중순에는 각각 1,247억원, 6,664억원이 유입됐고, 하순에는 2,721억원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 : 제로인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2009년 펀드시장 전망

2008년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진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투자하는 펀드도 마찬가지다. 채권펀드, MMF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펀드가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과연 손실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 상/하반기별로 다른 전망

각 증권사들의 2009년 펀드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기침체 위험과 기업 실적악화, 외국인 매도세가 2009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증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작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장기 적립식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내펀드에만 주어지면서 해외펀드보다는 국내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 각 증권사별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 전망

조정국면 연장 하반기들어 증시회복 예상

메리츠증권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장기 조정국면이 200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펀드시장의 가파른 양적 팽창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펀드시장 성장을 이끌어 왔던 주식형펀드는 작년의 부진을 2009년 초반까지 이어가면서 정체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들어 증시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자금유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악재들 속에 긍정적인 요인들 존재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 유망 예상

굿모닝신한증권은 원화약세, 주택시장침체에 따른 부동산 PF문제, 수출둔화 및 내수부진 등 우울한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정책효과의 가시화 및 연기금 주식비중 확대, 장기투자문화 정착,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외국인 매도세 진정 등 긍정적인 요인들로 반등 폭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년은 필수소비재, 전기/통신, 내수주 등 경기방어에 뛰어난 가치주펀드와 재무건전성과 배당성향이 높은 배당주 펀드 등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코스피지수의 상승 반전시에 대비해 성장주펀드에 대한 비중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상반기까지 경기둔화 부담 이어질 전망이나 하반기들어 경기회복 기대감 예상

하나대투증권은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금융완화 공조 및 경기부양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저평가 인식과 함께 경기회복 기대감 및 적립식투자 지속, 해외펀드 대체 등으로 자금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배당주펀드, 시장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에는 성장주펀드의 강세를 전망했다.

펀드스타일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투자증권은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모델과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펀드스타일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배당주펀드와 테마펀드가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되는 하반기에는 성장주펀드의 비중 확대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치주펀드 유망 예상 하반기에는 성장주펀드 강세 전망

우리투자증권은 상반기에는 안정성이 뛰어난 가치주펀드의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성장주펀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2. 각 증권사별 국내 채권형펀드 시장 전망

장기회사채펀드 출시로 자금유입 진행 전망

메리츠증권은 채권투자펀드의 자금부분에 있어 추세적인 감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회사채펀드의 출시로 이들로의 자금유입이 진행되면서 자금유출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진행 예상

하반기 이후로 회사채 스프레드 줄어들 전망

굿모닝신한증권은 2009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제로금리이고 국내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는 상반기 중 멈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회사채 스프레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통안채, 장기 국고채, 공사채 편입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고 하반기에는 스프레드 줄어드는 시점부터 회사채 투자 펀드의 성과가 돋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용위험이 줄어들고 시장상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들어 금리 상승세로 전환 예상

하나대투증권은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우호적인 통화정책이 기대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채권형펀드 또는 채권과 펀드만기를 일치시키는 매칭펀드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량채와 금융채 위주의 투자 유효 전망

한국투자증권은 우량회사채나 금융채 위주의 선별된 크레딧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등급 우수하고 듀레이션 짧은 회사채 펀드도 무리 없을 전망

우리투자증권은 국고채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듀레이션이 짧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3. 각 증권사별 해외 주식형펀드 시장 전망

하반기 이후 추세전환 가능성 보임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펀드에서의 자금이탈 규모는 둔화될 것이나 현재의 부진을 쉽게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추세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주식펀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브릭스의 경우 주식시장의 단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내주식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아진 해외펀드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브라질펀드 주시 요망

농산물펀드와 헬스케어 펀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머징펀드 중 자생적 생산 잠재력이 높은 중국, 브라질펀드 등에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펀드에서는 수급여건이 좋고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농산물펀드와 섹터펀드 중에서는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한 헬스케어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각 나라별 세부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하반기 이후 미국펀드 유망

중국펀드도 브릭스 국가 중 가장 상승탄력이 클 것으로 전망

△선진국펀드는 미국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일본이나 유럽 등 국가들로 서서히 전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반기 이후부터 미국펀드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펀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낮아지기는 했어도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국가로 위상이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갖가지 경기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2009년 하반기 이후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브릭스 국가들 중 가장 탄력 있는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펀드는 호재와 악재의 공존으로 선별적인 접근 요구됨

△브라질펀드는 내수비중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정책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지 않아 유동성공급 확대 등 공격적인 금융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외환부분에서도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하락은 경제부담감을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증가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둔화 이어질 전망
금융섹터, 뉴에너지섹터 관심두어야 할 것

하나대투증권은 2009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머징마켓 국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동성 보강에 따라 경제기반이 안정적인 국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섹터펀드는 증시와의 동조화 및 높아진 변동성에 따른 부담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섹터, 뉴에너지섹터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국가별 세부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기회복세 보일 전망

△미국은 금융 및 제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구제금융 확대와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이 시행되면서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인하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9년을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업이익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유가 안정세 및 글로벌 경기상승 전망이 기대되나 저금리에 따른 금리인하 제한으로 엔고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출주 실적회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경기상승 전망 가운데 엔고현상으로 수출주에는 부담

중국은견조한 성장세 예상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경제기반으로 경기부양대책 시행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은 원자재가격 약세 등으로 수출부담 예상

△브라질은 2009년 정부의 수출기업지원 등 경기부양대책이 예상되나 원자재가격 약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담으로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이어질 전망임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헬스케어펀드 우선순위 예상되며 농산물펀드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 요망

한국투자증권은 기대수익률 저하와 변동성확대 등으로 자금이탈이 완만히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분산투자 효과 제고를 기대했다. 헬스케어 등 섹터펀드와 중국펀드의 경우를 투자 우선순위로 보면서 선진국과 주변 이머징국가에 관심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귀금속 및 일부 농산물펀드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이 경기회복 주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중국펀드 주시 요망

우리투자증권은 향후 경기회복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머징 국가 중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자체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 2008년 펀드시장 Review 및 2009년 전망

증권사별 2009년 펀드시장 전망 요약

증권사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메리츠증권	상반기 : 정체 OR 마이너스 성장 하반기 : 증시회복으로 상승반전 예상	국내펀드에만 해당되는 장기적립식펀드 세제혜택으로 해외펀드는 매력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굿모닝신한증권	경기방어에 뛰어난 가치주와 배당주펀드 유망 성장주투자펀드에도 관심 필요	농산물펀드, 헬스케어펀드 유망 하반기이후 미국과 중국 투자펀드에 관심 요망
하나대투증권	상반기 : 배당주펀드 강세 하반기 : 성장주펀드 강세	미국펀드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세 전망으로 관심 요망 중국펀드 역시 견조한 경기성장세 예상
한국투자증권	상반기 : 배당주펀드, 테마펀드 하반기 : 성장주펀드	헬스케어펀드, 중국 펀드 유망
우리투자증권	상반기 : 안정성이 높은 가치주펀드 하반기 : 성장주펀드	미국 경기회복 주도 예상 중국이 브릭스국가중 가장 투자매력도 높음

[제로인 김주진, 류승미 펀드애널리스트 : www.funddoctor.co.kr]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대환란의 2008년, 주식펀드 Down…채권펀드 Up

1) 개황

2008년, 코스피지수 40.73% 폭락

'최악의 해'로 기억될 2008년 코스피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우려에 -40.73%라는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주식펀드도 1년간 -38.50%의 극히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일반주식펀드, 연간 -39.46% 기록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09년 1월 2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2008년 1년간의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 펀드는 -39.46%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지난 2000년 IT버블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보이며 전 업종들이 폭락했고 일반주식펀드 역시 그 충격을 비껴가지 못했다.

테마주식펀드, 연간 -31.13%로 가장 작은 낙폭 보임

유형별로는 삼성그룹주가 속한 테마주식펀드가 -31.13%로 가장 작은 낙폭을 보였고 경기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적은 배당주식펀드가 -36.6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OSPI200인덱스펀드는 -37.8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소형주식펀드는 38.11% 하락했다.

이렇듯 전 펀드가 매우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가운데 삼성그룹주 펀드들과 배당주식펀드들이 연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1년간 14.41% 하락에 그친 통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일반주식혼합 펀드와 일반채권혼합 펀드는 같은 기간 각각 -19.81%와 -8.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국내 주식형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 2009년 1월 2일 (단위 :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455	350,265	7.17	-19.70	-30.22	-39.46
	중소형주식	17	2,524	9.86	-21.82	-32.93	-38.11
	배당주식	33	30,152	7.70	-18.38	-28.56	-36.60
	테마주식	55	43,478	2.71	-17.04	-25.81	-31.13
	KOSPI200 인덱스	86	57,571	7.68	-19.82	-30.00	-37.89
	기타인덱스	39	7,112	5.64	-21.03	-31.25	-38.85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73	14,097	5.13	-8.42	-14.66	-19.81
	공격적자산배분	19	2,440	4.92	-7.39	-12.91	-18.09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208	38,018	3.71	-2.94	-6.24	-8.45
	보수적자산배분	58	5,180	3.99	-5.48	-8.53	-10.26
부동산형	부동산임대	7	2,991	0.54	-0.49	4.35	11.94
	부동산대출채권	20	12,107	0.82	2.13	4.15	8.27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24	7,850	1.82	0.20	-0.37	0.62
	시장중립	18	6,568	1.25	3.16	4.61	7.14
	공모주하이일드	78	7,603	1.29	-0.02	0.28	2.22
KOSPI				6.22	-21.89	-32.52	-40.73
KOSDAQ				7.74	-24.70	-42.83	-52.85

주1) 펀드수,설정액,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주2) 기준일은 펀드 기준가격 적용일, 증시지표 및 자금증감 기준일은 기준가 적용 직전영업일임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채권금리 급락으로 채권펀드 수익률 우수

2008년 채권시장 역시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다. 2007년부터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다.

국내채권펀드, 연간 8.04%기록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됐고 금융에서 시작된 악재가 실물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추며 금리인하를 시행했고 하반기 들어 채권금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 채권펀드는 1년간 8.04%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일반중기채권펀드, 연간 10.40%으로 가장 높은 성과 기록

신용 및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리가 내려가자 국고채 금리는 즉각 반응하며 하락했지만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도리스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국고채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일반중기채권 펀드가 10.4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특수채와 통안채 비중이 높은 우량채권펀드도 8.84%의 수익을 거두며 그 뒤를 따랐다.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 채권 펀드는 6.57%의 성과를 올렸고 일반채권펀드는 같은 기간 4.63%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편입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펀드별로 성과의 오름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채는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지만 회사채와 은행채 등 신용위험이 부각된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 채권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들은 작은 수익률 상승폭을 보여줬다.

▶ 국내 채권형펀드 유평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 2009년 1월 2일 (단위 :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채권형	일반채권	43	10,309	2.37	2.76	1.49	4.63
	초단기채권	5	1,140	0.88	2.04	3.47	6.57
	일반중기채권	14	15,262	5.76	7.54	8.26	10.40
	우량채권	16	5,080	2.76	4.59	5.83	8.84
	하이일드채권	13	1,601	1.22	2.29	3.08	5.82
MMF형	MMF	117	547,564	0.44	1.34	2.67	5.32
KIS채권지수(1년종합)				1.54	3.01	4.13	7.15

▷ 채권형 연환산 수익률

채권형	일반채권	43	10,309	27.89	10.93	2.96	4.63
	초단기채권	5	1,140	10.41	8.08	6.89	6.57
	일반중기채권	14	15,262	67.77	29.93	16.38	10.40
	우량채권	16	5,080	32.45	18.21	11.56	8.84
	하이일드채권	13	1,601	14.39	9.10	6.11	5.82
MMF형	MMF	117	547,564	5.14	5.31	5.30	5.32
KIS채권지수(1년종합)				18.18	11.95	8.20	7.15

주1) 채권형, MMF, KIS채권지수의 수익률 표시는 제목에 따름. 나머지는 단순실현 수익률임
주2) 펀드수,설정액,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주3) 기준일은 펀드 기준가격 적용일, 증시지표 및 자금증감 기준일은 기준가 적용 직전영업일임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2) 주식/ 채권시장 요약

2008년 주식시장, 40.73% 폭락

주식시장

2008년은 증시는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위기와 경기침체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갖가지 사건들이 몰려오면서 주식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 코스피지수는 1년간 40.73% 하락한 1,124포인트로 2008년을 마감했다.

상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하락세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연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후 3월 들어 유동성 위기가 터진 베어스턴스의 구제금융이 결정되면서 금융위기 진정 기대에 코스피 시장은 상승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증시는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가까스로 1600선을 지켜냈다.

하반기 이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이 터지며 폭락세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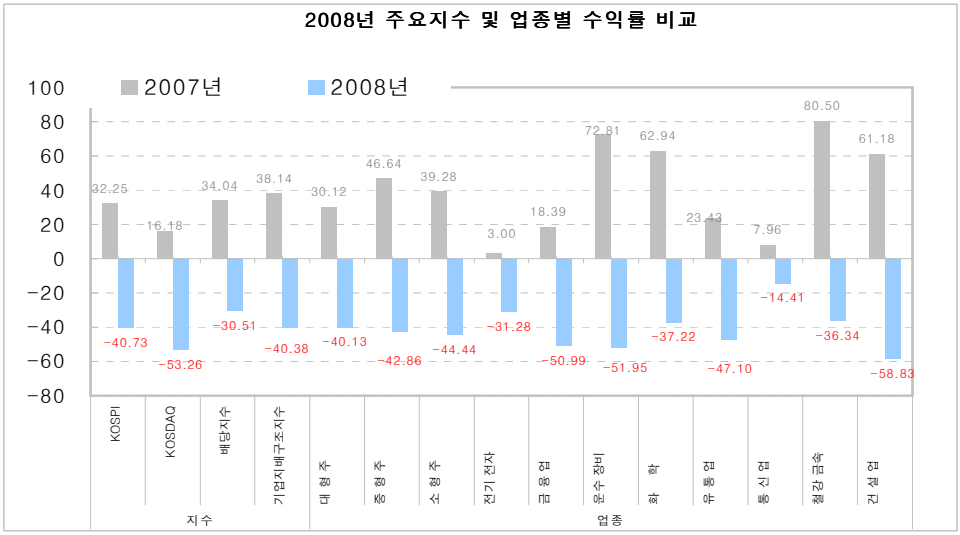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상반기의 악재들은 하반기에 불어닥칠 토네이도의 전초전에 불과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코스피 시장은 주체할 수 없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2분기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국제유가는 7월 후반부터 하락했지만 이것이 글로벌 경기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또한 9월 이후 리만브라더스, AIG, 국책모기지업체 등 미국 대형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주가는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10월 주식시장은 신용위기 혼란 속에 각종 기록들을 쏟아내며 최악의 한 달로 기억됐다. 하루만에 126.50포인트가 떨어지며 역대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는가 하면 3년 4개월만에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공포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이런 폭락장세가 계속되며 2008년에는 사이드카도 코스피시장에 26번, 코스닥시장에 19번씩이나 발동되며 사이드카의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2008년 말에는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및 미 대선,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등으로 신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간 낙폭을 더욱 축소하기엔 부족했다.

통신, 전기가스업종 수익률 낙폭이 상대적으로 양호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업종에 속하는 통신, 전기가스업 등의 수익률 하락폭이 비교적 작았고 경기에 민감한 증권, 기계, 운수장비 등은 50%이상 하락하는 극히 부진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PF부실과 미분양사태 등에 큰 타격을 입은 건설업은 -58.83%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채권시장

2008년 1년간 채권금리 급락

2008년 채권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년을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되살아나며 채권금리 급락세

2008년 상반기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일진일퇴하는 장세를 그렸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경기침체로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 났고 이는 채권금리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이후 5월 금통위 직전까지 경기둔화를 우려해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고 따라서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만연했지만 끝을 모르고 치닫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등으로 인해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되자 실망감 및 손절매물 출현으로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8월에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은 가중됐고 리만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및 메릴린치의 매각 등 신용위험이 재부각되면서 대세적인 금리상승 분위기는 계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4분기에 들어서며 채권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공조에 따른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연말로 접어들면서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기대감 등으로 채권금리는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간 국고채 1년물은 2.53%포인트 하락한 3.20%를 기록했고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2.34%포인트, 1.99%포인트 하락하면서 단기물이 더욱 강세를 보였다. 반면 회사채 AA-는 0.82%포인트 상승한 7.72%,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BBB-의 경우 2.95%포인트나 오른 12.06%로 한해를 마감했다.

■ 종류별 채권 수익률 추이 단위 :%

일자	국고5	국고3	국고1	통안2	통안1	회사채AA-	회사채 BBB-	CD	CP
2007.12.31	5.76	5.74	5.73	6.11	5.76	6.90	9.11	5.82	6.42
2008.12.31	3.77	3.40	3.20	3.49	3.23	7.72	12.06	3.93	6.39
등락폭	-1.99	-2.34	-2.53	-2.62	-2.53	0.82	2.95	-1.89	-0.03

그림: 본드웹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3) 주식펀드 성과

주식펀드 모두 연간 마이너스(-)성과 기록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년이 넘는 277개의 주식펀드(기타인덱스 펀드 제외) 모두가 마이너스(-)성적을 보였다. 이중 196개 펀드가 코스피지수 수익률인 -40.73%를 그나마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주펀드 연간성과 상위권 기록

2008년 한 해 동안 업종대표주들을 편입하고 있어 주가하락 방어에 비교적 우수한 삼성그룹주 펀드들과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한 배당주식펀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삼성그룹주들은 환율상승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 상반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중소형주식펀드들의 수익률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반기에는 삼성그룹주 펀드들이 속한 테마주식펀드들의 수익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나마 양호하게 나타났다.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펀드, -27.28%로 연간성과 1위

펀드별로는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펀드가 2008년 1년간 -27.28%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보유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정밀화학 등이 10%대의 하락에 그치면서 펀드 수익률 하락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역시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A)',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B)'가 각각 -27.82%, -28.19%의 근소한 수익률 차이로 2, 3위를 기록하는 등 삼성그룹주 펀드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프런티어우량주식C1' 펀드 연간 최하위 성적

반면 '프런티어우량주식C1'펀드가 1년간 -49.80%을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 펀드는 8% 이상으로 시장에 비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업종이 같은 기간 52.85 하락하면서 이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주식형 펀드 2008년 성과 상위 TOP 10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세부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	동양운용	238	테마주식	0.17	-16.70	-27.28	-27.28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A)	한국운용	987	테마주식	1.50	-15.88	-24.09	-27.82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B)	한국운용	720	테마주식	1.39	-15.63	-23.88	-28.19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2(A)	한국운용	2,207	테마주식	1.59	-16.53	-24.76	-28.49
한국투자부자아빠삼성그룹주식 1(C형)	한국운용	1,371	테마주식	1.58	-16.38	-24.66	-28.71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1(A)	한국운용	23,068	테마주식	1.55	-16.63	-25.11	-29.29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주식 1(C)	한국운용	1,799	테마주식	1.55	-16.60	-25.03	-29.35
한국셀렉트배당주식 1(C)	한국운용	147	배당주식	7.19	-11.09	-19.55	-29.76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주식형자 1	미래에셋자산	519	일반주식	6.71	-14.91	-24.55	-30.81
Tops Value주식 1A	SH운용	2,886	일반주식	10.48	-17.72	-24.80	-31.28

▶ 주식형 펀드 2008년 성과 하위 TOP 10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세부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KB광개토주식N- 1 Class A	KB운용	266	일반주식	6.31	-24.76	-36.70	-45.17
신한미래설계적립식주식 1-클래스 C	신한BNPP운용	832	일반주식	7.58	-22.92	-33.00	-45.21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 2- 11	푸르덴셜운용	105	일반주식	4.35	-22.71	-34.71	-45.22
삼성우량주장기-CLASS A	삼성운용	1,509	일반주식	5.67	-21.25	-32.09	-45.29
KB스타다가치성장주적립식주식 1	KB운용	191	일반주식	6.31	-24.67	-36.82	-45.54
기은SG그랑프리포커스금융주식	기은SG운용	120	테마주식	5.75	-25.73	-36.16	-46.58
하이지주회사플러스주식 1-C1	하이운용	2,611	일반주식	8.58	-22.57	-34.66	-47.21
우리CS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투자 1C 1	우리CS운용	173	테마주식	4.62	-20.17	-37.71	-47.44
유리Growth&Income주식	유리운용	143	일반주식	5.37	-26.50	-37.85	-48.24
프런티어우량주식C1	우리CS운용	2,271	일반주식	5.74	-26.58	-39.38	-49.80
전체				6.81	-19.45	-29.78	-38.50

2. 2008년 국내펀드 시황

4) 채권펀드 성과

대부분의 채권펀드, 연간 5%이상 수익률 기록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년이 넘는 29개 채권펀드 중 단 1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연간 5%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모든 펀드들이 콜금리(연환산 3.02%)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고채 편입 비중 높은 펀드들의 성과가 비교적 우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을 비롯해 1년물, 5년물 등 전체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펀드들의 성과가 양호했다. 그러나 신용 및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국고채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회사채의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국고채 보유비중이 높은 채권펀드들의 성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채권펀드들의 성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펀드들은 보유종목의 부실로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9월에 리만브러더스의 부실로 아이투신의 8개 채권펀드가 환매가 중단됐고,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성건설 채권을 편입하고 있었던 '도이치코리아채권'펀드 역시 부실자산 발생 사유로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간성과 최하위를 기록한 'KB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 역시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코스닥 상장업체인 희훈디앤지 편입으로 환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BF Korea인덱스종류형채권CLASS A'펀드, 11.89%로 연간성과 1위

펀드별로 살펴보면 'ABF Korea인덱스종류형채권CLASS A'가 11.89%의 높은 성과를 올리면서 연간성과 1위를 기록했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 국채에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이 펀드는 1년간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급락한 것에 효과를 입으면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제로인 김주진 펀드애널리스트 : www.funddoctor.co.kr]

▶ 채권형 펀드 2008년 성과 상위 TOP 10

□ 연환산 수익률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6개월	1년	신용등급	듀레이션
ABF Korea인덱스종류형채권CLASS A	삼성운용	2,820	중기채권	67.93	19.20	11.89	AAA	3.65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1	삼성운용	157	중기채권	58.76	17.67	11.23	AAA	2.90
교보악사Tomorrow장기우량채권K-1 ClassA	교보악사운용	7,132	중기채권	73.91	16.17	10.13	AA+	4.09
그랑프리국공채 1 C클래스	기은SG운용	587	우량채권	33.83	12.06	9.21	AAA	1.61
동양매직국공채 1ClassC-1	동양운용	220	중기채권	96.28	14.53	9.11	AA+	3.54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KB운용	419	중기채권	50.81	16.34	8.91	AAA	3.58
Tops국공채중기채권 1	SH운용	116	우량채권	30.94	9.15	8.85	AAA	1.73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 1B	푸르덴셜운용	207	일반채권	31.43	10.67	8.73	AA+	1.34
신한국공채장기채권SH-1	신한BNPP운용	1,400	우량채권	33.95	11.46	8.42	AAA	2.14
삼성우량채권종류형 1_C	삼성운용	160	일반채권	26.20	10.24	7.99	AAA	0.80

▶ 채권형 펀드 2008년 성과 하위 TOP 10

□ 연환산 수익률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6개월	1년	신용등급	듀레이션
개인연금공사채 7	한국운용	192	일반채권	28.32	8.86	6.64	AA+	1.25
하나UBS클래스원장기채권S-1	하나UBS	152	일반채권	24.05	6.76	6.59	A+	1.40
하나UBS인베스트연금채권S- 1	하나UBS	173	일반채권	25.41	7.18	6.33	A+	1.45
하나UBS장기주택마련채권 K-1	하나UBS	153	일반채권	24.25	7.27	6.13	A0	1.29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2Y-1	동양운용	563	하이일드채권	22.19	6.03	6.01	BBB+	1.05
하나UBS단기채권혼합 1	하나UBS	363	초단기채권	7.18	6.01	5.88	A0	0.16
뉴개인연금채권S-1	하나UBS	376	일반채권	23.36	6.29	5.86	A+	1.42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채권 1	한국운용	312	일반채권	41.22	7.86	5.78	AA+	2.31
BEST CHOICE단기채권 4	SH운용	209	일반채권	23.40	5.62	5.72	AA-	1.28
KB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KB운용	120	하이일드채권	-65.92	-6.17	-0.75	A-	1.43
전체				3.80	5.38	8.04	AA0	2.48

주) 듀레이션과 신용등급은 '08년 11월 초 기준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미국 發 금융위기로 해외펀드 반토막

1. 개황

미국 발 금융위기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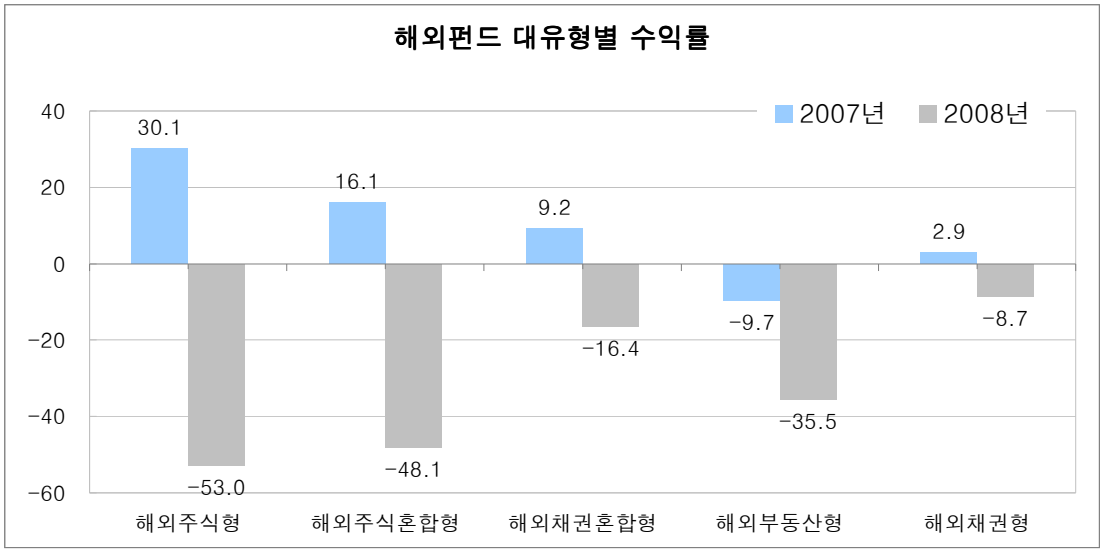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침체로 전이되면서 해외 주식펀드는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선진국 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신흥국의 성장세도 뚜렷이 둔화됐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인한 신용경색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동반 하락했다. 하반기에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국제금융 불안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증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각국 정부의 전례없는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조치와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등 실물경기 하강위험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주식 펀드
2008년 -53.0%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09년 1월 2일 아침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2008년도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형 펀드는 -53.0%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 펀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55.26% 급락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증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GDP성장률이 9%수준으로 하락하고 미국과 유럽의 소비침체가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연초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러시아, 브라질 펀드 및 원자재섹터펀드는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 펀드는 같은 기간 각각 -48.1%, -16.4%의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역시 주택시장 침체 및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35.5%의 손실을 기록했다.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2. 해외 주식시장 요약

전세계 증시 동반 폭락

2008년 미국 증시 침체는 주택시장의 침체에서부터 시작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은 미 모기지 업체와 대형 투자은행, 보험회사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이는 실물경기침체로 이어졌다.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AIG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금융위기는 급격히 심화됐다. FRB가 공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글로벌 실물 경제가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침체국면으로 악화되면서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에 MSCI 북미주식은 -41.05%로 한 해를 마감했다.

서브프라임 피해
FRB, 금리인하 등으로
사태해결 적극 나서

유럽 주식시장 역시 미국의 경기침체와 신용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1월과 6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유럽 증시는 이후에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을 키워갔다.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주택 경기와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 분기대비 0.2% 감소한 데 3분기에도 0.2% 감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으로 금융불안 최고조

일본증시 역시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니케이와 토픽스 지수는 연간 하락률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일본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0.9%와 0.5% 감소하면서 경기 후퇴국면에 진입했고, 엔화 강세와 대외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강수지 흑자폭도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재정적자와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중국 증시
상해 A지수 -65.38%
H 지수 -51.06%

금융불안으로 선진국 경기가 유례없는 침체에 빠지면서 신흥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의 자본이탈이 심화되면서 신흥국 증시 역시 동반 하락했다. 2003년 이래 선진국을 상회하던 신흥국 증시는 2008년 3분기 이후에는 선진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변옘볕?크게 확대됐다.

중국증시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전망과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증시는 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냉각됐다. 상반기중 10%를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3분기에는 한자리수로 성장이 둔화됐다. 증시 하락세가 장기화 되면서 같은 기간 상해 A지수는 65.38% 급락했고, 항셍 중국기업(H)지수도 52.34% 하락했다.

MSCI 유럽주식 -41.15%

러시아 증시는 올해 72% 하락하면서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5월에는 15.6%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6월에는 미국의 신용위기 재부각과 글로벌 긴축기조의 영향을 받아 4.8% 하락했다. 유가가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면서 에너지주 주도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8월 그루지야 전쟁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9월 미국 발 금융쇼크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등 최악의 주가폭락사태를 맞으며 급하강했다.

브라질-러시아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주가 폭락

브라질 증시는 2008년 41.22% 하락하며 지난 2003년~2007년 사이 5년째 이어온 상승세가 꺾였지만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그나마 선방했다. 연초 미국의 경기 후퇴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1월 후반 들어 FRB의 금리인하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국의 소비시장 확대, 헤알화 강세, S&P와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증시 하락세의 영향으로 6월에만 10.7% 급락했고,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 및 철광석 수출이 크게 줄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인도 증시도 미국 경기 후퇴와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담 가중으로 50% 넘게 하락했다. 특히 8월 인플레이션 12.63%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9월 한달 동안에만 13% 가까이 하락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6월 이후 세 차례나 금리인상을 했던 인도 역시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9월 이후 기준금리와 더불어 지급준비율도 인하했다. 또한 해외 자본 유입을 위해 비거주자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예금 금리를 인상, 국내 기업의 외화 차입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RP거래를 통한 자금 공급을 공급했다.

■ 세계 주요지수 기간별 성과(주식)

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단위: %)

지역별 주요지수	1개월	3개월	6개월	2008년
MSCI 글로벌주식	0.33	-21.85	-31.99	-41.60
MSCI 신흥국주식	4.06	-22.62	-39.32	-47.38
MSCI 북미주식	-0.79	-23.89	-31.74	-39.38
MSCI 남미신흥국주식	4.24	-21.57	-39.11	-39.80
MSCI 유럽주식	0.38	-17.67	-27.35	-41.15
MSCI 유럽신흥국주식	-2.32	-40.94	-60.27	-64.85
MSCI 아-태주식	3.93	-22.03	-34.75	-45.39
MSCI 아-태주식 (일본제외)	4.21	-20.43	-32.83	-46.65
MSCI 아시아신흥국주식	5.86	-19.81	-34.59	-48.55
MSCI 일본주식	3.75	-23.45	-36.49	-43.62
MSCI 인도주식	9.14	-28.27	-29.53	-56.82
MSCI 러시아주식	-6.00	-49.32	-71.63	-72.71
MSCI 브라질주식	2.77	-25.32	-44.04	-44.50
상해A지수	-3.91	-20.64	-31.26	-65.38
항셍 중국기업(H지수)	6.77	-12.99	-33.74	-51.06
베트남 호치민	0.29	-30.54	-22.95	-65.95
DJW 글로벌REIT 지수	7.79	-38.55	-40.75	-45.74

주1) MSCI글로벌주식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세계 48개국 주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지수.
DJW글로벌 REIT지수 : Dow Jones Wilshire가 발표하는 글로벌 리츠 지수.

3. 해외 채권시장 요약

금융위기와 경기후퇴로 안전자산 수요확대

2008년 해외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디플레이션 공포, 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4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자 각국에서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 채권시장의 경우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2007년 말 대비 각각 2.29%, 1.79% 급락했다.

1/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와 신용 경색이 지속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2/4분기에는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조치에 따른 불안 심리 완화, 달러화 약세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상당 기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확산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다. 4/4분기에도 실물경기 침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FRB, 제로 금리 정책 도입

신용 경색 심화에 따라 추진했던 FRB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조치(2007.9.18~2008.4.30일 중 7회에 걸쳐 5.25%->2.00%로 인하)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10월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 및 실물경제 침체를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씩 인하 한데 이어 12월 1%에서 0%~0.25%로 0.75%~1%포인트 인하했다.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FRB의 연방기금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포인트)

결 정 일	2007 8.3	10.31	12.10	2008 1.22	1.30	3.18	4.30	10.8	10.29	12.16
기준금리	4.75	4.5	4.25	3.5	3	2.25	2	1.5	1	0~0.25
조정폭	-	0.25	0.25	0.75	0.5	0.75	0.25	0.5	0.5	0.75~1

ECB, 10월 이후 1.75%포인트 인하

2007년 7월 이후 1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4.0%에서 동결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인플레이션 효과 차단을 위해 기준 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금융위기가 급격히 부상하고 실물경제 부진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지속되면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75%포인트(4.25%->2.5%)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12월에는 유럽중앙은행 출범이래 최대폭인 0.75%포인트를 인하했다.

■ ECB의 기준금리 변경 추이

(단위: %, %포인트)

결 정 일	2006 8.3	10.5	12.7	2007 3.8	6.6	2008 7.3	10.8	11.6	12.4
기준금리	3	3.25	3.5	3.75	4	4.25	3.75	3.25	2.5
조정폭	-	-0.25	-0.25	-0.25	-0.25	-0.25	0.5	0.5	0.75

BOE, 195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

영란은행(BOE)은 2008년 2월과 4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5.5%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10월에도 0.5%포인트 인하했고 11월에는 예상을 상회한 1.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3.0%의 기준금리는 195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상품가격이 급락하면서 영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 반면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부진, 주택투자의 대폭 감소, 기업투자 악화 및 수출시장의 약화 등 경기전망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BOJ,
7년 7개월 만에 금리인하
美-日간 금리차 역전

일본은행(BOJ)도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7년 7개월만인 지난 10월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5%에서 0.3%으로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두 달 뒤인 12월 미국 FRB의 제로금리 정책도입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 등의 영향으로 0.1%로 0.2%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4. 해외주식 세부 유형별 펀드 성과

헬스케어 섹터, -20.97%로 가장 선방

세부 유형별로는 헬스케어 섹터 펀드가 2008년 한해 동안 -20.97%의 수익률로 가장 선방했다. 관련 기업의 실적전망이 상향 조정 되고 업종 특성상 경기 변화에 둔감해 경기둔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원자재 섹터 펀드
2008년 -39.54%

원자재 섹터 펀드는 2분기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 되면서 상반기 14.1%의 수익을 거뒀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39.54%의 부진한 수익률로 한 해를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7월초 배럴당 140달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투자자금 이탈로 급락세로 전환, 연말에는 40달러 대로 고점대비 70%이상 하락했으며 기타 원자재 가격도 대체로 8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발 신용경색 우려로 주춤한 글로벌 주식 펀드는 같은 기간 5.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유럽주식 펀드는 0.37%의 수익률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이머징 국가들에게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히면서 선진국 투자펀드들 보다 이머징마켓 펀드들의 수익률 하락폭이 더 컸다.

유럽 신흥국 주식펀드
-65.58%

유럽 신흥국 펀드는 유로존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등의 자본이탈이 심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돼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10월 들어 미국 등의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국가로 빠르게 파급되고 이들 국가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금융불안이 확산됐다. 이에 유럽 신흥국 주식펀드는 -65.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 펀드는 무려 78.48% 폭락했다. 그루지야 분쟁 이후 국제신인도 하락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돼 주가가 급락했다.

남미 신흥국 주식펀드
-53.83%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남미 신흥국 주식펀드도 하반기 들어 신용경색 심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관련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주가 및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53.83% 하락 마감했다.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재정적자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금융불안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고 각국이 경제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신흥국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 주식 펀드는 상반기 중 강세를 나타냈지만 하반기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49.69%하락했다. 민간 부분의 외채가 급증한 가운데 통화 약세 및 외화자금 조달 여건의 악화로 외채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2004년 이후 헤알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그간 늘어왔던 통화 파생상품 거래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해 금융시장 불안감이 가중 됐다.

중국 주식펀드
-55.26%

중국 주식 펀드는 연중 55.26%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가 중국의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9월 이후 금융불안 심화로 실물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증시 하락폭이 확대됐다.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등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긴축 정책 및 대외 여건 악화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에 중국 정부도 금융정책 기조를 긴축에도 완화로 전화하면서 11월 향후 2년간 4조 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도 9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 한데 이어 11월 1.08%포인트를 일거에 인하하는 등 4개월 동안 1.97%포인트 인하했다.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일본 펀드는 -43.7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엔화 강세와 글로벌 증시 하락, 자국 내 경기와 기업실적에 대한 악화우려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OECD와 IMF가 내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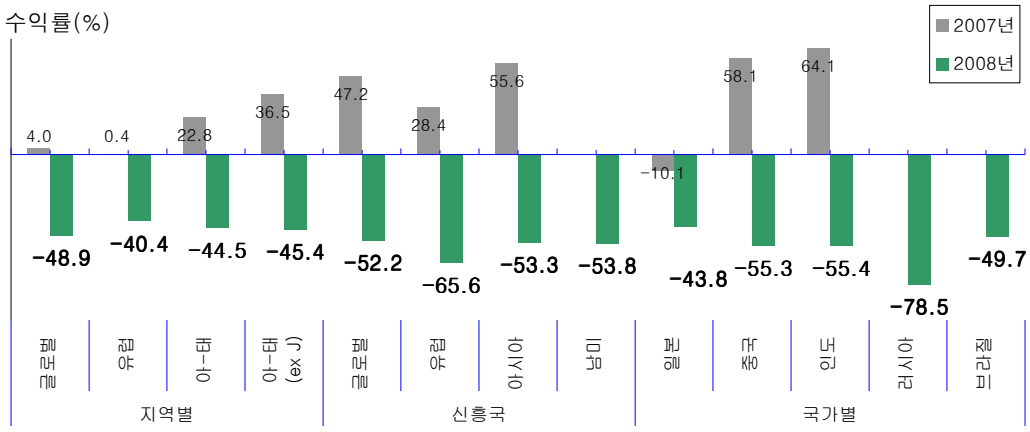
■ 해외 주식형 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 01월 02일 (단위 : 억원, %)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2월	4분기	하반기	2008년
글로벌주식	61	4,073	-0.48	-27.97	-40.70	-48.92
신흥국주식	117	76,476	-5.31	-28.23	-48.41	-52.19
유럽주식	36	4,571	-2.09	-19.45	-27.73	-40.36
북미주식	7	150	-1.67	-26.95	-35.75	-44.39
아시아태평양주식	20	3,585	2.77	-20.68	-31.92	-44.46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45	27,063	-2.84	-21.38	-33.75	-45.42
동남아주식	27	4,644	1.95	-27.54	-42.38	-51.90
아시아신흥국주식	44	18,706	2.82	-23.31	-35.62	-53.34
유럽신흥국주식	23	5,282	-8.62	-45.84	-63.59	-65.58
남미신흥국주식	29	7,300	-5.31	-32.64	-56.31	-53.83
일본주식	51	5,467	-0.43	-25.32	-36.69	-43.78
중국주식	95	106,713	4.24	-20.53	-38.68	-55.26
인도주식	26	10,187	-3.98	-28.95	-31.01	-55.35
말레이시아주식	1	29	-2.53	-14.69	-24.27	-37.30
브라질주식	19	1,638	-7.99	-29.20	-55.78	-49.69
러시아주식	19	1,627	-16.19	-60.68	-79.31	-78.48
호주주식	3	47	-2.39	-20.82	-31.85	-41.59
특정국가주식	8	114	-6.25	-31.23	-60.94	-62.87
기타이머징주식	13	388	-1.75	-40.53	-53.73	
에너지섹터	22	2,117	-1.10	-34.31	-49.68	-56.77
기초소재섹터	18	2,102	-3.74	-26.07	-49.06	-45.31
소비재섹터	11	691	-0.89	-25.68	-31.34	-45.28
헬스케어섹터	4	491	4.39	-11.75	-15.07	-20.97
금융섹터	13	1,447	-4.27	-26.02	-37.52	-58.14
원자재섹터	19	1,177	-4.13	-30.97	-49.80	-39.54

주) 설정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제로인 평가대상 펀드를 대상으로 산출

해외 지역별 수익률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5. 해외 주식펀드 2008년 성과

금 관련 기초소재펀드 헬스케어 및 소비재 펀드 상위권 차지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년 이상인 259개 해외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2008년 성과를 측정한 결과 금 관련 기초소재 섹터펀드를 비롯해 헬스케어, 소비재 펀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 2_A' 엔화 가치 상승으로 -10.63% 로 가장 양호

펀드별로는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 2_A'가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상승한 데 힘입어 -10.63%로 2008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 펀드는 환노출형 펀드로 동일하게 운용하되 환헤지를 하는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 1_A'와 무려 39.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기에 이어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위험이 고조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가해 엔화가치가 상승하며 환노출형 펀드가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엔화는 전통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안전 통화로 인식되어 왔다.

금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SH골드파생상품 1-A'와 '기은SG골드마이닝주식자A클래스'도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각각 -11.74%,-29.94%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 1_A'와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주식형1(CLASS A)' 펀드도 경기에 둔감한 업종 특성을 반영하며 각각 -20.02%와 -24.99%로 선방했다.

러시아 및 유럽 신흥국 주식펀드, 최하위권

반면 상반기 우수한 수익률을 자랑했던 러시아와 유럽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하락폭이 컸다. 'JP모간러시아주식종류형자 1A' 펀드는 하반기에만 무려 84.28% 폭락하면서 1년 수익률 -83.68%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제로인 조성욱 펀드애널리스트 : www.funddoctor.co.kr]

■ 해외주식형 펀드 2008년 상위 Top 20

기준일: 2009년 01월 02일 (단위 :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세부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 2_A	160	일본주식	-3.92	-5.41	-13.94	-10.63
SH골드파생상품 1-A	231	기초소재섹터	15.48	2.23	-19.49	-11.74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자Class A	609	일본주식	-4.16	-6.08	-14.35	-14.35
PCA아시안리더스주식자P 1클래스A	147	아-태(ex J)	-4.61	-4.91	-11.08	-14.86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 1_A	178	헬스케어섹터	3.18	-13.67	-15.21	-20.02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주식형 1(CLASS A)	588	아-태(ex J)	-4.79	-16.29	-19.59	-24.99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 1(CLASS	2,331	아-태(ex J)	-3.99	-17.34	-20.51	-26.14
JP모간중동&아프리카주식종류자 1A	1,572	신흥국주식	-5.38	-20.03	-27.27	-27.85
피델리티아시아포커스주식형재간접자(E)	174	아시아신흥국	-2.81	-14.64	-23.85	-29.69
기은SG골드마이닝주식자A클래스	122	기초소재섹터	12.88	-7.20	-32.94	-29.94
신한BNPP봉쥬르유럽배당주식 2자(H)종류A1	288	유럽주식	-2.37	-13.81	-18.40	-30.04
피델리티아시아포커스주식형재간접자(A)	278	아시아신흥국	-4.06	-16.00	-24.97	-30.54
봉쥬르유럽배당주식 1	1,202	유럽주식	-2.83	-14.88	-19.81	-31.68
PCAChinaDragonAShare주식A- 1ClassA	1,417	중국주식	-11.15	-7.70	-12.89	-31.81
미래에셋맵스로저스농산물지수종류형파생상품(C-	252	원자재섹터	1.51	-19.40	-40.55	-32.29
NH-CA라틴아메리카포르테주식C-A 1	101	남미신흥국	-11.15	-27.71	-44.35	-32.86
삼성KODEX China H	1,126	중국주식	-8.07	-8.52	-20.50	-33.16
도이치DWS프리미어아시아50종류형주Cls C-I	141	아-태주식	-3.80	-15.48	-26.90	-36.67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 1ClassA	863	아-태(ex J)	-4.93	-17.42	-28.36	-37.66
미래에셋솔로몬A/P파이낸셜서비스주식 1ClassA	180	아-태(ex J)	-3.94	-19.88	-22.04	-37.95

주) 운용펀드가 동일한 클래스 펀드는 운용기간이 가장 긴 펀드를 대상으로 함

3. 2008년 해외펀드 시황

■ 해외주식형 펀드 1년성과 하위 Top 20

기준일: 2009년 01월 02일 (단위 :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세부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KB인디아주식형자(Class-A)	579	인도주식	4.31	-32.10	-34.68	-63.14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주식형자 1(Class-A)	541	중국주식	5.18	-29.28	-47.20	-63.29
JP모간중남미주식종류형자 1A	273	남미신흥국	-3.33	-46.42	-63.86	-63.35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주식형자 1(CLASS-A)	394	인도주식	5.75	-30.54	-29.71	-63.62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 2(CLASS-A)	3,923	중국주식	2.47	-27.42	-45.76	-64.47
KB유로컨버전스주식형자(Class-A)	177	유럽신흥국	-9.91	-43.83	-54.62	-65.02
도이치브릭스플러스재간접U- 1	498	신흥국주식	-9.93	-39.79	-60.73	-65.29
하나UBS파워엔진Brics해외재간접 1	427	신흥국주식	-0.17	-41.63	-58.34	-65.72
Gold&Wise BRICs해외재간접K- 1	123	신흥국주식	-0.58	-41.23	-58.93	-65.81
도이치브릭스플러스재간접 1	1,006	신흥국주식	-10.91	-41.14	-60.61	-66.03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주식형자 1CLASS-A	301	유럽신흥국	-8.50	-50.58	-65.60	-66.17
우리CS Eastern Europe주식Class A 1	1,020	유럽신흥국	-7.54	-47.31	-65.84	-66.27
템플턴이스턴유럽주식형자 A	323	유럽신흥국	-9.22	-47.57	-57.26	-66.55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베트남&차이나주식 1(CLASS-A)	316	중국주식	1.92	-34.59	-51.94	-67.91
신한BNP봉쥬르동유럽플러스주식자_HClassA1	1,317	유럽신흥국	-4.17	-48.17	-65.18	-67.92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주식형자(CLASS-A)	249	중국주식	5.15	-26.43	-54.16	-69.40
미래에셋맵스MSCI이머징유럽인덱스주식 1(C-A)	304	유럽신흥국	-6.72	-50.85	-66.57	-70.09
신한BNP봉쥬르러시아주식투자_자ClassA 1	197	러시아주식	-8.67	-49.23	-71.40	-70.43
우리CS러시아익스플로러주식 1ClassA1	359	러시아주식	-17.89	-57.81	-76.96	-75.99
JP모간러시아주식종류형자 1A	434	러시아주식	-16.85	-70.57	-84.28	-83.68

주) 운용펀드가 동일한 클래스 펀드는 운용기간이 가장 긴 펀드를 대상으로 함